

생명의 말씀이 콩고공화국에!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콩고공화국 푸앵트누아르 지역 선교 등 교회 소식.

‘팔복’ 시리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된다.

만민을 만나 변화된 나~

생명의 제단에 인도받은 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생령의 역사를 체험한 아르헨티나 벨라르 목사와 돌발성난청, 오심건 등을 치료받은 임선예, 김은희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96호 2019년 7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십자가의 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명호 목사 초청 콩고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지난 6월,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콩고공화국에서 목회자 및 지도자 세미나와 더불어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6월 16일 주일 오전예배는 콩고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항구도시인 푸앵트누아르에 위치한 푸앵트누아르 만민교회(담임 에밀리언 목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관해 증거했다(사진 1~3).

저녁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복음교회(담임 로저스 목사)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관해 전했다. 정 목사는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자신의 변화된 삶, 그리고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사역에 대해 증거했다.

설교 후 회개 시간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폭포수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 이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정 목사가 기도해 주자 귀신이 떠나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며, 심장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사진 5, 6, 8).



6월 17일(월)과 18일(화)에는 콩고 만민교회 및 타 교단의 목회자와 지도자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푸앵트누아르만민교회에서 ‘믿음의 분량’(롬 12:3)을 주

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정 목사는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주의 종의 온전한 삶’ 등에 관해 전했다(사진 4, 7).

이후 마음의 성결을 사모케 하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받은 목회자들이 간절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특히, 푸앵트누아르에서 250km 떨어진 곳에서 참석한 마분구 목사는 세미나 말씀을 듣던 중 어깨 통증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기도를 받기도 했다.

이번 선교 사역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 대학교수이자 앙골라만민교회 담임인 아라오 항가 목사는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 제 강한 성격으로 인해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복음교회 로저스 목사는 “「십자가의 도」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만민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등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여 개 교회가 만민의 지교회로 등록하였다.

학생주일학교, ‘드림 콘서트’로 감동 선사

지난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학생주일학교 주최 ‘드림 콘서트’(Dream Concert)가 본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혜나 자매(호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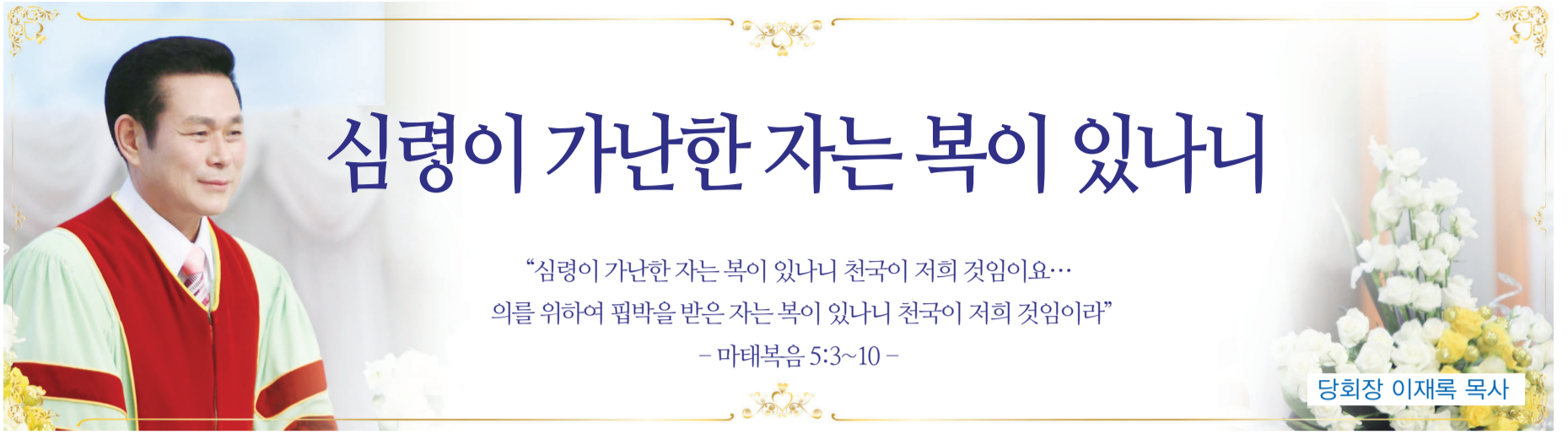
2)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성재 형제(트럼펫, 고2)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윤권능 형제(더블베이스, 고2)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를, 임주언 형제(비올라, 고1)는 ‘아리랑’과 ‘불을 내려주소서’를 연주했다.

이어 출연진 전체가 ‘You raise me up’을 연주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토요찬양예배’ 홍보를 비롯해 미리 포장한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응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콘서트 출연자들은 아동주일학

교 고적대 출신으로, 어릴 적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화농성 고관절 염증, 화상 등을 치료받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학생들이다.

고등부 연합회장 김보석 형제(고3)는 “이번 콘서트는 학생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에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찬양과 연주를 들으시며 행복해하시는 모습, 함께 찬양하며 눈물지으시는 모습이 감동되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저희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팔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지표가 됩니다.

무엇보다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팔복을 이룰 수 있다면 부러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1. 참된 복의 첫 번째 관문 :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心靈)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여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 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지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다고 자부했던 청년은 근심에 싸여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란 마음이 부요한 사람으로, 비록 겉으로는 악을 행치 않을지라도 욕심이 가득해 재물이나 권세, 지식, 자존심, 오락과 향락 등에 만족을 누리며 추구하니 이런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물론 나사로처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친히 가난한 길

을 가셨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고후 8:9).

2. 가난한 심령이 되어 참된 복을 받으려면

1)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했지요.

먼저, 육신의 정욕이란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의 속성을 말합니다. 미움, 혐기, 욕심, 음욕, 시기, 교만 등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좇아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또 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속성이 있는 사람은 남의 소문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전하며 수군수군하는 것이 마음에 달게 느껴지지요. 또한 혐기가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고, 그래야 후련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면 능히 버릴 수 있으며, 이럴 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느낌과 함께 받아들이면 그 후로 비슷한 장면을 보더라도 이전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해도 예전의 느낌이 떠오르면서 안목의 정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가면 결국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도 한때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범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유발시키는 도화선과

같기에 혹여 “이것쯤이야...” 하고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므로 무엇보다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진리를 보고 듣고 생각하여 좋은 느낌으로 입력시켜 나갈 때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입니다. 부귀영화, 지식, 재능, 외모 등을 열심히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지요. 이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약 4:16).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고전 1:31).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천국 등을 자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열심을 심어 줍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아 이생의 자랑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롬 15:2).

4) 영적인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단순하고 순수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이의 마음이 되면 잘못된 일에 대해 금세 뉘우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순수함이 사라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각해지고,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시기 질투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하며, 상대의 허물을 전하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지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선악 간에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게 되고 어찌하든 범 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또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해도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쌓아감으로 마음이 어른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발견되어도 무덤덤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미 아는 말씀인데' 하거나 자신의 유익에 맞는 것만 순종하며,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3.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축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복, 곧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될 처소로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의 세계입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주고자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 14:2)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는 여러 처소가 있어서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을 지켰느냐에 따라 처소가 달라집니다.

만일 심령이 가난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데 그쳤다면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눅 23:43).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변화되는 만큼 1천층, 2천층, 3천층, 더 나아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신 10:14 ; 계 21:2).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취했다면, 더욱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팔복을 온전히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만민! 캠페인



‘Thank you 만민!’ 캠페인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처음 그리고 설렘>, <감사해요, 나의 주님>이 있었으며

6월에는 <우리는 만민입니다>의 첫 번째 주제 ‘만민을 만나서 변화된 나’가 마쳐졌다.

그때그때 주제에 맞는 성도들의 고백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도들의 은혜로운 고백, <만민을 만나서 변화된 나> 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생명의 말씀 통해 삶의 궁극적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1999년 즈음이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듯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무엇 때문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나는 집에서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직장의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바둑, 당구 등 잡기를 즐겼고 독서를 많이 하니 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다.

그런 내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 것이 1999년 그때였다. 교회의 문을 두드린 내게 말씀이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 있었다. 말씀은 내가 사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답을 명쾌하게 들려주었다.



바로 성결 되는 것,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증시켜 주었다.

또한 2002년에 인도 마리나 해변에서 당회장님을 강사로 치러진 ‘인도 연합대성회’는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나 스스로에게 주었다. 그 일은 나에게 큰 믿음이 되었다.



지금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물론 잡기는 손에서 자연히 떠났고, 가정에서는 은혜로운 가장이 되었다. 또한 행복하게 당회장님의 저서 <성경 인물 시리즈> 독후감 대회에서도 입상하는 은혜를 입었다. 두루두루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었다. 만민을 만난 뒤로.



이석철 장로 (64세, 구미만민교회)

“주님은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1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나 나 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사람을 의지하던 유약한 나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포기를 잘하던 나를 값진 연단을 통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내성적이었던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선한 마음을 이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 내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함께 울고 웃고 손을 잡아주는 주 안의 한 가족으로 매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다.

차분하지 못하고 실수 투성이던 내가 예배 안내와 새교우 봉사를 하면서 예의바른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내가 수련회 체육대회 때마다 앞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는 사람으로, 늘 움츠리고 살아온 나를 헌신예배 때면 울동하며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어릴 때부터 음악 시간은 너무 어렵고 노래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는데,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무지개중창단, 향유중창단, 현재는 금빛성가대로 사명 감당하다 보니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설렌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다. 딸은 학생부 피아노 반주와 오로라 워십팀으로, 아들은 학생부 드럼 반주와 나사렛성가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셨다. 남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는 아빠가 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미숙아가 정상으로 태어났고, 신장기능 약화, 축농증, 급체, 게임 중독, 교감신경항진증 등 온 가족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 사랑해요, 만민!



최미자 집사 (46세, 2대대 12교구)

“무릎 통증은 물론 고질병인 심근경색의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벨라르 도밍게즈 목사 (61세, 아르헨티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심’교회)

저는 평소 친분이 있는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설교 말씀은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서 매우 경이롭고 좋았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저는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2부 은사집회 시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자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무릎 통증은 물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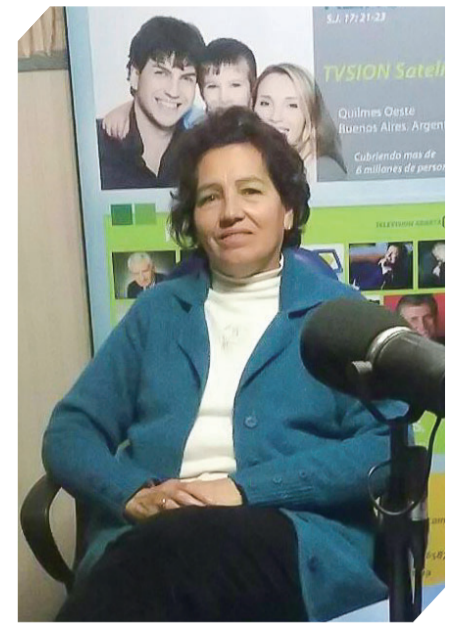
질병인 심근경색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년 전부터 여러 번의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의사들조차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도 있었지요. 이후에도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심장 압박과 반복적인 호흡 곤란은 저를 괴롭혔고, 의사들은 제가 심장 때문에 평생 의학 치료 및 약물 복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철야예배 시 은사집회를 인도하신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

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자 제 가슴 안쪽에서부터 무언가가 뿜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임해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 뒤 모든 이상 증상이 사라져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은사집회 때 무릎 통증을 치료받고자 준비하면서 심근경색에 대해 기도받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은 고질병인 데다 며칠 전에 다친 무릎 치료가 제게는 더 시급했지요. 당장 걷는 것은 물론 일어서는 것



조차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돌발성 난청과 메니에르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임선예 집사 (55세, 3대대 28교구)

2019년 5월 8일, 귀가 멍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이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바로 침대에 바로 누워 있어야 하니 일상생활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는 “돌발성 난청에 메니에르병까지 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며 영적으로 막힌 부분이 무엇인지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

절히 기도하였지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이고 육적인 충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부지방회 주최 ‘성령 충만기도회’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후 이어진 회개와 찬양 시간 후,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사라져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이후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통증의 오십견이 치료되었습니다

김은희 집사 (47세, 대전만민교회)

저는 1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통증이 극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요.

한의원에 가서 진료해 보니 오십견이었습니다.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에 한의원에서 침을 한 번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그 뒤로는 가지를 앓았습니다. 다만 오른쪽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통증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6월 초, 중부지방회 주최 성령 충만기도회가 저희 대전만민교회에서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는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6월 20일, 간절했던 만큼 성령충만기도회 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감사 이수진 목사님으로부터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에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 끝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더니 통증이 이내 사라졌고, 그 뒤로는 어떤 이상도 없었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오른쪽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여보아도 전혀 아프지 않아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입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A원B/D ☎031)905-2419, 010-2352-833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